다관왕·무더기 메달 기대감 높아

전국체전 제주선수단 전력분석 (중)개인·단체종목
근대5종 강세… 배드민턴·탁구 등 입상권
백중세 종목 많아 메달 추가 가능성 기대

올해 제주도선수단은 각종 전국규모 대회 참가 현황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기력이 향상돼 다관왕이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메달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메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외에 백중세를 보이는 종목이 많아 무더기 메달을 안겨줄 가능성도 크다.

지난달 18~2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사전경기로 열린 체조에서 제주선수단은 당초 백중세로 평가받은 허선미(제주삼다수)가 여자일반부 이단평행봉에서 첫 금메달을 신고했다. 올해 한국실업연맹체조대회에서 개인종합과 도마, 평균대까지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양세미(제주삼다수)는 도마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메달이 확실할 것으로 기대된 남고부의 강민국(남녕고 3)은 4위에 머물러 체조에서는 당초 목표로 한 4개의 메달을 반타작하는 데 그쳤다.

효자종목인 근대5종에서는 남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하는 제주선발에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대5종 개인 부문의 소현석과 근대4종 계주의 제주선발(이지훈·소현석·김대원)도 유력한 입상 후보다. 박우진(한국체대)은 근대4종 개인 부문 백중세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철인3종에서는 남고부 양지혁(제주방송통신고 3)이 스프린트코스(개인)에서 백중세로 분류된다.

배드민턴 종목은 남고부 개인복식에서 제주사대부고의 이혁재·이민서가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사대부고는 단체전에서도 백중세다. 여고부에서는 제주여고가 단체전 백중세이며, 제주여고의 지영빈·최희주는 개인복식에서도 백중세로 분류된다. 골프는 남자부 개인전에서 박준홍(제주고 3)이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박준홍은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1위를 거머쥐고 2019년 국가대표로도 선발됐다. 남일반부 단체전에 나서는 제주선발팀도 백중세로 평가돼 기대해볼 만하다.

탁구에서는 여일반부 단체전의 대한항공이 입상을 노리고 있으며, 김하영(대한항공)은 여일반부 개인전에서 백중세로 평가된다. 테니스는 남고부 개인전의 김주빈(남녕고 2)과 여대부 개인전의 임은지(한국체대 4)가 백중세를 보이고 있다. 스쿼시에서는 2019 제22회 금곡배 전국초·중·고 스쿼시 선수권대회 남고부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한 김승현(제주고 2)의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다.

승마 종목에서는 일반부의 김대현(제주국제대 2)이 대장애물비월경기 금메달 영순위로 손꼽힌다. 볼링은 남고부 3인조전의 남녕고(이민섭·김호진·강태영)와 남대부 개인·2인조·3인조·마스터즈 부문에서 제주대(오병준·변재용·오종석·조찬영)가 백중세다. 댄스스포츠에서는 도댄스스포츠연맹 소속의 석수안·장미리가 일반부 스탠다드 3종목에서 1위가 기대되며, 같은 소속의 최수영·김수현은 일반부 스탠다드 5종목에서 백중세로 분류된다.

제주도체육회는 올해 각종 종목에서 우수선수 유출이 잇따라 전력이 크게 약화되자 남은 기간 상대팀 전력분석을 토대로 강도 높은 실전 대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중세 및 입상 가능 종목별로 상대팀(선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맞춤형 전략 수립으로 집중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 극대화에 힘쓰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10개국이 참가한 제12회 제주 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 국가별 단체전에서 대만팀이 우승했다. 사진=제주도테니스협회 제공

제주 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 성황

10개국 150여명 선수 출전
제주 홍보 투어도 큰 호응

제12회 제주 국제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지난달 28~29일 서귀포시 테니스장과 제주시 연정구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도테니스협회(회장 오재윤)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체육회, 제주개발공사가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홍콩, 몽골 등 10개국 선수와 임원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전년 대회와 달리 도내 테니스동호인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국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내 동호인 선수와 외국 선수를 파트너로 하는 개인복식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비날씨 예보로 외국참가선수들 혼합 개인복식전으로 28일 서귀포테니스장에서 진행돼 대만과 몽골 혼합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말레이시아의 로난(35)은 한국 꿈나무(유소년) 테니스 양성모 감독과의 인연으로 한국대표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 출전해 많은 주목을 받으며 3위에 입상했다.

29일 제주시 연정구장에서는 국가별 단체전이 열려 대만팀과 중국팀이 결승에서 만나 치열한 승부 끝에 대만팀이 2-1로 우승했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국가대항전에서 한국 제주팀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테니스협회는 별도로 경기 진행 외에 각국 선수단과 함께하는 환영리셉션과 제주를 홍보하기 위한 1일 투어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표성준기자

관광대 신준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입상

볼더링 2위·난이도 3위 기록

신준하(제주관광대 3·사진)가 2019 문경 전국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볼더링과 난이도 부문에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신준하는 지난달 28~29일 문경국제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볼더링 경기에서 이민영(서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볼더링은 안전 장비 없이 4~5m의 여러 코스를 완등한 수로 순위를 결정하는 종목으로 신준하는 앞서 예선에서 공동 3위에 올라 결승에 진출했다.

신준하는 또 난이도 종목 예선전에서 공동 1위로 결승에 진출한 뒤 3분 55초의 기록으로 완등해 3위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신유관(제주관광대 1)은 결승에서 완등 전 홀드 3개를 남기고 추락해 공동 7위에 머물렀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m의 벽을 정해진 시간 내에 오른 높이로 순위를 결정하는 리드(난이도)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m의 벽을 빨리 오른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는 스피드 ▷안전 장비 없이 4~5m의 여러 코스를 완등한 수로 순위를 결정하는 볼더링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표성준기자

'우유 세리머니' 펼치는 허미정 허미정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브릭야드 크로싱 골프클럽에서 막을 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인디 위민 인테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서 최종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허미정은 시즌 2승을 달성했다. 우승한 뒤 우유를 쏟아부으며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월드컵 예선, 손흥민·이강인도 평양행

10일 화성서 스리랑카 戰
15일 평양서 북한과 대결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 손흥민(토트넘), 이강인(발렌시아)도 29년 만에 이뤄질 한국 남자축구의 '평양 원정'에 동행한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2·3차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파울루 벤투 국가대표팀 감독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리랑카, 북한과의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H조 2·3차전을 치를 25명의 대표 선수를 발표했다.

한국 대표팀은 10월 10일 스리랑카(오후 8시·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 이어 15일 북한(오후 5시 30분·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과 차례로 맞붙는다.

벤투 감독은 지난달 10일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치르고자 불러들였던 선수들을 주축으로 다시 대표팀을 꾸렸다.

9월에 소집된 선수 중 김태환, 김보경(이상 울산), 이정협(부산)이 빠지고 이재익(알라이얀), 김문환(부산), 남태희(알사드)가 새로 발탁됐다.

'캡틴' 손흥민과 '벤투호의 황태자' 황의조(보르도) 등 해외파들이 변함없이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았다.

9월 5일 조지아와 치른 평가전에서 자신의 A매치 첫 경기를 치른 이강인 역시 다시 차출돼 월드컵 예선 데뷔 기회를 잡았다.

연합뉴스

1박 2일 가족스포츠캠프 운영

제주도체육회는 가족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지난달 28~29일 1박 2일 간 명도암 참살이 마을에서 '2019가족스포츠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도내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25가족 100명이 참가해 텐트치기와 가족만들기체험, 명랑운동회,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평국 제주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도민 누구나 집 앞을 나서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민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화목한 가정을 위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프로그램과 가족캠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표성준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11:50 한식의 마음(재)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여름아 부탁해(재) 9:40 무한리필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너의 노래를 들려줘(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모두 다 쿵따리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5 기분 좋은 날 10:45 웰컴2라이프(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0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수상한 장모 9:10 좋은아침 10:10 SBS 뉴스 10:30 살맛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딩동댕 유치원 9:30 원더볼즈 10:00 기획특강-지식의 기쁨 12:00 EBS 정오뉴스 14:55 꼬마버스 타요 15:10 로보카 폴리 15:55 출동! 슈퍼윙스 16:10 최고다! 호기심 딱지 4 16:40 딩동댕 유치원 17:30 페파 피그 19:00 스파이더맨 20:00 TV로 보는 원작동화
12:00 KBS 뉴스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늬우스 13:50 우리말 겨루기(재) 14:40 팔도밥상 스페셜 15:00 가요무대(재) 16:00 사사건건 17:00 KBS 뉴스5 17:30 동물의 왕국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3:05 살림하는 남자들(재) 14:10 생활의 발견(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공부책상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무한리필 샐러드(재) 17:00 다큐멘터리 3일(재)	12:00 12 MBC 뉴스 12:20 경성판타지 13:20 헬로키즈 동물교실(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16:20 모두 다 쿵따리(재) 17:00 5 MBC 뉴스 17:2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50 민방 네트워크 뉴스 12:40 JIBS 뉴스 12:50 K트롯 서바이벌 골든 마이크 (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접속! 무비월드(재) 17:00 SBS 오뉴스 17:45 JIBS 뉴스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이한철입니다 12:00 CBS낮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경의 기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7 오늘 제주 19:40 보물섬 20:30 여름아 부탁해 21:00 KBS 뉴스 9 22:00 시사기획 창 22:55 더 라이브 23:35 숨터 23:40 거리의 만찬(재)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태양의 계절 20:30 글로벌24 20:55 거리의 만찬(재) 22:00 너의 노래를 들려줘 22:35 너의 노래를 들려줘 23:10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	18:25 웃음주식회사 속암수다 19:30 MBC 뉴스데스크 20:55 웰컴2라이프 21:30 웰컴2라이프 22:05 다큐에세이 그 사람 23:05 PD수첩	18:00 영재발굴단(재) 19:00 특별기획드라마 환상의 타이밍 20:0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본격연예 한밤 1부 21:30 본격연예 한밤 2부 22:00 리틀 포레스트 1부 22:40 리틀 포레스트 2부 23:20 불타는 청춘	**KCTV** 7:00 KCTV 뉴스 8:30 내 별명은 대토령 9:00 KCTV 뉴스 10:00 KCTV 다큐스페셜 12:10 글로벌 아카데미 14:30 KCTV 씨네한수 15:00 KCTV 다큐스페셜 16:10 스포츠당구 더 레슨 19:00 KCTV 뉴스7 21:00 내 별명은 대토령 21:30 KCTV 종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1일

김종상 지단(知旦)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변동시 불리하고 실패가 따르니 현상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48년 내가 도와준 만큼 실속은 적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 60년 생각이 맞지 않을시 대항하려 한다. 이해타산은 더 불리하게 만든다. 72년 계산상 착오나 머뭇거리다 손재가 발생하니 기회 포착이 포인트. 84년 취직 또는 이성교제 길하다.

37년 오는 말은 고운데 가는 말이 곱지 않다. 49년 답답하고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61년 재물에 고통이 오거나 가족간 다툼이 올수 있다. 돈거래 금지. 73년 내가 하는 만큼 결과가 오니 성실한 자세와 책임완수가 최선. 85년 인적자원 활용이 절실한 시대, 자격증 취득이 필수라 느낀다.

38년 정도를 지켜나가면 명예나 부가 따르고 주위로부터 인정받는다. 50년 신용에 이상이 오니 맡겨진 일은 책임완수를 다하도록 노력하라. 62년 바쁘게 움직인다. 늦게까지 분주. 74년 이성관계에 망신수가 생기니 남녀관계는 신중함과 냉철한 판단 필요. 86년 주변 또는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니 먼저 나서지 마라.

39년 의도와 다른 일들이 생겨 마음이 불편하면 친구와 대화를 하라. 51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63년 다툼이나 불화가 찾아오니 먼저 나서지 마라. 말대꾸는 더 큰 화를 자초한다. 75년 부모나 윗분과의 의견다툼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 87년 면접시험이나 직장에서 희소식이 생긴다.

40년 행동에 제약을 받거나 간섭이 따른다. 52년 경쟁자가 나를 시기하거나, 명예와 관련된 사람은 주의 필요. 64년 안전사고 유의. 직장 상사나 남편의 문제가 생겨 마음이 고생이 있다. 76년 재물에 대한 욕구가 크다. 과욕과 조급함은 실패를 낳는다. 88년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큰꿈을 이룰 수 있다.

41년 마음을 달래줄 손님이 찾아오고 부탁도 청한다. 53년 집안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 구입시 분실조심 할 것. 65년 답답할 땐 슬픔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77년 맞지 않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 발동하지 마라. 89년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게 된다.

42년 활동성이 있으며 단체봉사에 참여 한다. 54년 나의 주장이 상대를 피곤하게 하니 언행을 주의하고 경청하라. 66년 내조의 힘이 있고 문서 계약 등에서 이익이 있다. 78년 전문자격이나 손에 재주를 가진 업은 인정을 받는다. 90년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라.

43년 자녀 또는 아랫사람과 논쟁이 있으니 대응하지 않는게 좋다. 55년 계획을 세우고 창업을 하고 싶어한다. 신규사업은 희망이 있다. 67년 직장 또는 애정에서 희소식이 오거나 멋을 낸다. 79년 직업이나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이 생긴다. 91년 일이 생기고 몸이 사방으로 분주하다.

44년 대인관계가 좋으면 명예가 따른다. 56년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해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68년 상대 비판은 나에게 치명타가 되니 비판하지 마라. 80년 나의 따스한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것도 상대를 기분좋게 한다. 92년 구설이 따르니 언행을 신중하게.

45년 내일보다 자녀문제로 생각이 가득차 있다. 57년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면 구설이 따르고 자녀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69년 집안어른께 애·경사가 오니 준비를 미리하라. 81년 취업이나 직장에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가온다. 93년 진퇴양난의 입장이 오면 상의하여 일을 해결하는게 좋다.

46년 구매하고 싶은 것이 많이있고 충동심이 강해진다. 58년 상대에게 칭찬을 많이 하라. 자식과 부하직원에게 친화력이 진가를 발휘한다. 70년 경쟁은 또다른 시련이며 극복의 대상이다. 82년 나를 광고하고 주위에 협조를 구하면 취업도 이루어진다. 94년 마음고생이 다소 진정되고 협력자가 생긴다.

47년 자기의 역사는 자신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가지에 전념하면 좋다. 59년 큰돈이 지출되거나 대출문제로 분주하다. 71년 동업이나 신규창업 계획은 꼼꼼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83년 취업과 직업운이 길. 조언이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라. 95년 신경이 예민하거나 두통이 오니 무리하지 말 것.